

死에 對한 研究(二)

韓稚振

그런고로 生物은 죽기 前에 벌써 折半은 死하여있고 쏘는 死便에 잇슬지라도 그 折半은 生하여 잇다할 수 잇슨 즉 生死問題는 그리 分□□야 論示□ 수 업다하였다. 이 □見□ 依하여 었던 □者들은 如□한 物質□□도 生命이 잇다고 □게 되엿다. 오직 生死의 分別은 그 生의 活動 量의 差異에만 잇다 한다. 이것은 背日부터 불러 온 所謂 物活論이라 하갓다.

勿論 死라 하는 것은 最下等生物에게는 볼 수 업다. 多數한 下等有□體들의 增加는 性的配合으로 되지안코 單只分裂로써 母體가 分立하여 兩個어린 生命을 成形할 것 쏘이다. 이 分裂作用에는 아모런 死體도 머물러 잇지 아니한 것이다. 一 母가 分裂하여 두어 個 어린 細胞的 生命으로 되어 잇슬 것 쏘이다. 비록 一個 母란 것은 잇지 안이하나 그러나 母體는 그대로 子體에서 維持하는 것이다. 死라는 現狀은 오즉 上等生物의 所有이다. 이것은 生物의 體가 分等化함에 쏘아서 死의 現狀이 超하였다. 生物은 其 自體가 發達됨에 依하여 死라는 압힘을 價으로 맞지아니 할 수 업게 되엿다. 死는 生物의 發達에 必要□伴이 되엿다. 兩性에 結合으로써야만 生命이 出□함에는 自然的 死가 必要하게 된 것이다. 여러 部分으로 成立된 生物은 各部의 一□的 動作을 爲하여 멧멧 不充分한 部分을 除去하지 안이하할 수 업게 된다. 이리하여 □□의 完全하고 쓸만한 部分만 生存하여 大體發展한 部分을 보는 것이다. 死는 이런 故로 進化 上 必要하다.

死는 大體로 兩種으로 分見할 수 잇는데 하나는 意識의 除□이요 쏘 하나는 肉體的 死일 것이다. 이 兩種의 死는 一個體的 生命에 隨伴하는 것이갓다. 사람을 銃殺하면 곳 意識이 업서지고 □次 肉體드가잇고 □土心이 多量으로 석기는 것이 가장 重要한 □伴이다. 그럼으로 吾人은 研究에 研究를 더하여 上述한 바와 가튼 意味아래서 『□□』이라는 朝鮮的 術語를 創作하는 同時에 그 方法에 잇서서도 日本, 中國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□□한 朝鮮

特有物을 創□한 것이다. 그리하여 혀끗(□上)으로 붓끗(□上)으로 或은 地方□回로 이것의 意傳 普及에 熱中해 내려왔다. 이러한데도 不抱하고 여기 만일 이것을 無視하고 그 用語부터 작구만 남의 것을 因□引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故意로 우리의 朝鮮的 民衆敎化運動의 統一□을 □□식히라는 惡意로 맞게 볼 수 업는 것이다.